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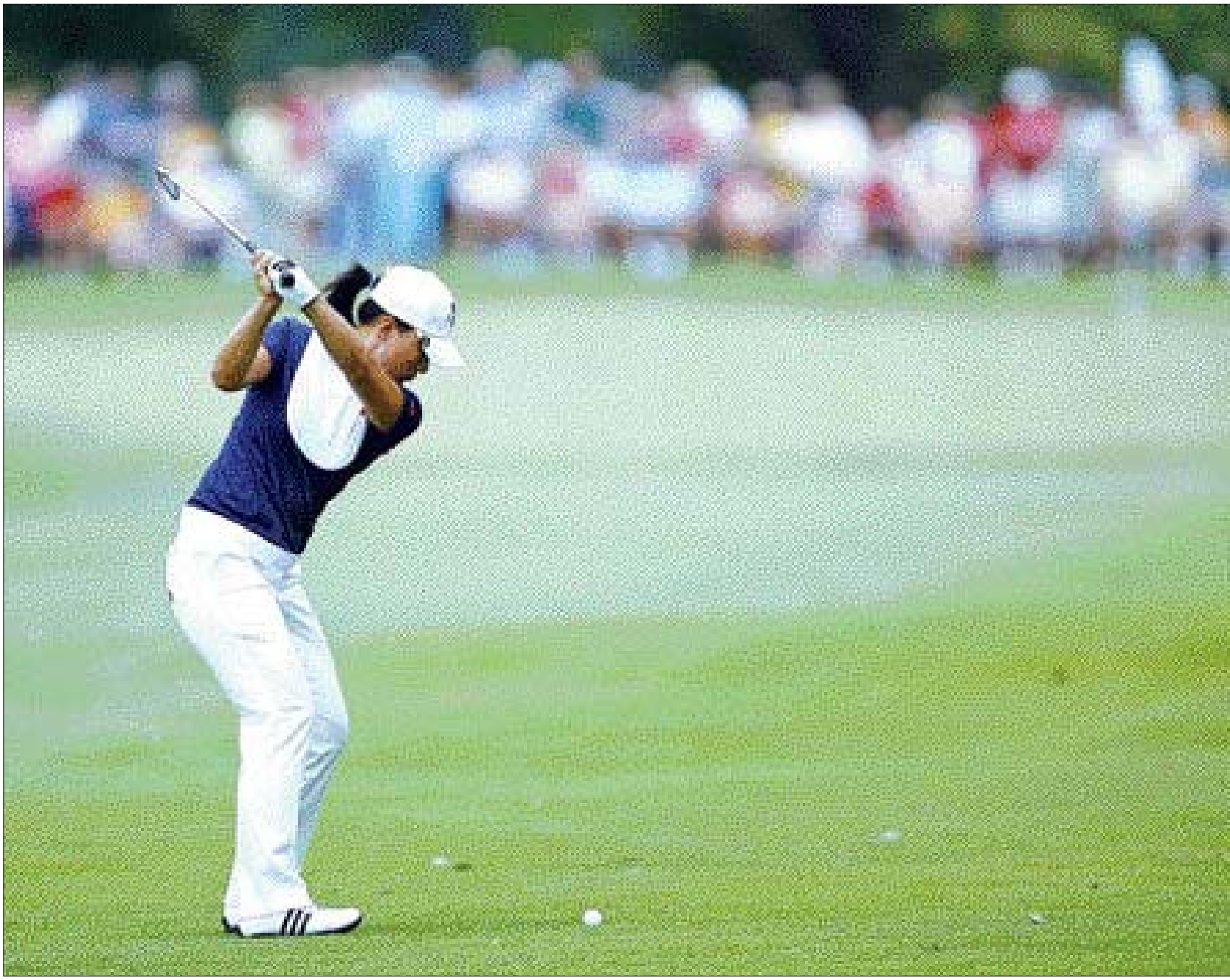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박세리가 15일 미국 오하이오주 하일랜드 메도우스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3라운드 4번홀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박세리 사흘째 선두 지켜

LPGA 코닝클래식 3R 13언더파 프레셀 무려 7타 줄여 2타차 추격

박세리(30·CJ)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우승에 성큼 다가갔다. 박세리는 15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스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곁들여 2언더파 69타를 쳐 중간 합계 13언더파 200타로 사흘 내내 선두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미국의 영건 모건 프레셀이 무려 7타를 줄이며 11언더파 202타, 2타차로 따라 붙어 이 대회 통산 다섯번째 우승을 노리는 박세리는 마지막 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기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번홀(파3)에서 3퍼트를 범해 1타를 잃은 박세리는 4번홀(파4)과 6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내 만회한 데 이어 13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보냈다.

박세리는 16번홀(파4)에서 보기, 17번홀(파5)에서 짧은 버디 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프레셀의 기를 살려 주었다. 박세리에 7타를 뒤진 채 3라운드를 시작한 프레셀은 전반에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였고 후반에는 버디 5개를 쓸어 담으며 지난 4월 코라프르나 비스코 챔피언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우승했던 실력을 뽐냈다. 프레셀에 1타차까지 쫓기던 박세리는 18번홀(파5)에서 정규타수만에 그린에 볼을 올리지 못했지만 세 번째 칩샷을 홀 1.2m에 붙인 뒤 버디 퍼트로 돌아와, 2타차로 벌리며 한숨을 돌렸다. 무서운 신에 김민경(19)은 1번홀(파4)에서 7번홀(파5)까지 무려 7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지만 후반에 1타를 잃어 중간 합계 8언더파 205

타로 단독 3위로 뛰어올랐다. 전날 단독 2위까지 올랐던 박진영(21)은 3타를 잃어 버리는 부진 끝에 중간 합계 3언더파 210타로 공동 15위로 내려간 것이 아쉬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상욱 42위로 '미끌'

PGA 존 디어 클래식 3R

나상욱(23·코브라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에서 뒷걸음질쳤다. 나상욱은 15일(이하 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실비스

의 디어던 TPC(파71·7천257야드)에서 계속된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4개를 버디 3개로 만회하는데 그쳐 중간 합계 4오버파 209타로 전날 공동 23위에서 공동 42위로 내려앉았다.

19일 개막하는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오픈 출전을 확정짓지 못한 선수들은 존 디어 클래식에서 10위안에 들어야만 브리티시오픈에 나갈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캐피탈 루니 재계약 거부...러시아 갈 듯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한국형 용병' 손루니(25·206cm)가 구단의 강한 러브콜을 뿌리쳐 12월1일 개막하는 2007~2008시즌 국내 코트에 설 수 없게 됐다. 김호철 현대캐피탈 감독은 15일 "루니와 재계약이 될 건 없었다. 미국 대표팀 참가로 다음 시즌 1, 2, 3라운드를 못 뛰더라도 팬들의 강한 열망을 반영해 계약하려고 했지만 루니가 러시아 팀과 계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말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를 밟아 현대캐피탈의 겨울리그 2연패에 앞장섰던 미국 출신의 '특급 용병' 루니는

2007~2008시즌에는 국내 무대에서 뛰지 않는다. 루니는 데뷔 첫해인 2005~2006시즌 오픈공격 1위(성공률 48.94%)와 서브 2위(세트당 0.39개), 득점 4위(453점) 활약으로 현대의 통합우승에 앞장선 뒤 그 해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이어 2006~2007시즌에도 시간차공격 1위(성공률 69.23%)와 공격종합 2위(성공률 53.14%), 득점 4위(518점)를 기록하고 두 시즌 연속 챔피언 MVP 영예를 안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머리로 중심잡기...흔들리면 안돼 캐나다의 카롤리네 맥키가 15일 브라질에서 열린 팬 아메리카 여자 체조대회에서 평균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印尼 알보면 다쳐”



8만여 홈 관중 합성 상대팀 압박 기동력도 뛰어나 베어백호 부담

2007 아시안컵축구 공동개최국 인도네시아가 47년 만에 정상 도전에 나선 태극전사들의 여정에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14일(한국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봉카르노 경기장은 마치 2002년 한일월드컵을 떠오르게 하듯 '붉은 물결'로 뒤덮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유니폼 색깔인 붉은색 티셔츠로 맞춰 입은 8만 8천여 명의 관중은 목청이 터져라 '인도네시아'를 외쳤고, 수실로 발방 유도요노 대통령까지 응원전에 합세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90분 내내 강한 압박과 기동력을 앞세워 사우디를 괴롭혔다. 결국 후반 인저리타임 때 결승골을 내주며 1-2로 패하긴 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3위의 인도네시아는 무려 81계단이나 높은 사우디(62위)를 상대로 D조 최고 복병임을 증명했다. 이날 경기장 본부석에서 흥명보 코치와 나란히 앉아 경기를 지켜본 핼 베어백 감독의 얼굴에는 '놀랍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패배로 1승1패(승점3)가 된 인도네시아는 18일 예정된 한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독기를 품고 나설 게 뻔한 만큼 첫 경기를 무승부로 마친 베어백 감독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인도네시아 이반 콜레프 감독 역시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사상 첫 8강 진출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한국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겠다"며 객관적인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지만 이미 적음을 마친 그라운드와 8만 8천여 명의 열띤 응원이 뒤를 받쳐준다면 막판 기적을 노릴 수 있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역대전적에서 32승4무2패로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마지막으로 졌던 것 역시 32년 전인 만큼 강세를 보여왔다. 특히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1996년과 2000년 연속으로 만나 각각 4-2, 3-0 승리를 거뒀고, 이동국(미들즈브러)은 2000년에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불가리아 출신의 이반 콜레프 감독을 2004년 영입해 그해 아시안컵 본선에서 사상 첫 승을 거두는 성과를 거둔 뒤 성장을 계속하면서 올해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복병으로 성장, 한국대표팀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레인을 잡고 인도네시아전을 쉽게 가겠다"는 소망을 내비친 베어백 감독으로서 독기를 품고 8강 진출에 사활을 걸고 나설 인도네시아의 거센 도전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우디, 印尼에 신승

공동 축구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인저리타임에 터진 극적인 결승골을 앞세워 홈팀 인도네시아의 돌풍을 잠재웠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2위의 사우디아라비아는 14일(한국시간) 오후 자카르타 글로라 봉카르노 경기장에서 펼쳐진 2007 아시안컵 축구 본선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후반 인저리타임에 사드 알하르티

의 결승 헤딩골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에 2-1 신승을 거뒀다. 이로써 사우디는 1승1무(승점4)로 8강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1차전에서 바레인을 물리치면서 공동개최국 돌풍의 주역이 됐던 인도네시아는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해 1승1패(승점3)로 상승세가 꺾였다. 또 C조 우즈베키스탄은 홈팀 말레이시아를 5-0으로 대파해 8강행 불씨를 되살렸다. 첫 경기에서 이란에 역전패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최종전에서 8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FIFA “국제경기 고도제한 없던 일로”

해당 국가들 반발 거세

선수보호 차원에서 국제경기 개최지의 고도를 제한해 해당 국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국제축구연맹(FIFA)이 결국 두 손을 들었다. 15일(이하 한국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남미 축구연맹은 FIFA가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지역 예선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발표했다. 라파스의 에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은 해발 3

천577m에 위치하고 있다. FIFA는 지난 5월 선수 보호를 위해 해발 2천 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는 국제경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 FIFA는 이후 남미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져 고도 상한을 3천m로 수정, 에파드르의 키토(2천800m)와 콜롬비아의 보고타(2천640m)에서는 국제경기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다시 해발 3천m가 넘는 볼리비아에서 월드컵 예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해 FIFA의 고도 제한 조치는 사실상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체코·오스트리아 결승행 다름

U-20 월드컵 축구

체코와 오스트리아가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2007 대회 결승 티켓을 다투게 됐다. 체코는 1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에드먼턴 커먼웰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대회 8강전에서 연장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3으로 승리, 준결승에 진출했다. 체코는 슈팅 수 14-30, 유효슈팅 수 2-14가 말해주듯 경기 내내 스페인의 파상공세에 시달렸지만 끝까지 골문을 지켜내며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갔다. 그리고 연장 전반 13분 루보스 칼루라의 선제골이 터져 승리를 눈 앞에 뒀다. 하지만 연장 후반 5분 스페인의 후안 마누엘 마타가 동점골을 성공시켜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됐다. 체코는 네 번째 키커까지 착실히 골문을 열었다. 하지만 선축한 스페인은 세 번째 키커 마르크 발리엔테의 슈트가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뒤 다섯 번째 키커 제라드 피케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걸리며 체코에 4강 티켓을 내주고 말았다. 연장까지 세 차례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뉘던 스페인은 승부차기에서도 골대 불운에 울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멕시코, 우루과이 꺾고 3위

코파아메리카 2007

'북중미에서 날아온 손님' 멕시코가 남미 대표축구 선수권대회 '코파아메리카 2007'에서 우루과이를 꺾고 3위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에 완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된 멕시코는 1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대회 3, 4위전에서 먼저 선제골을 내졌지만 노장 파테목 블랑코의 동점골과 오마르 브라보의 결승골, 안드레스 파르다도의 추가골로 우루과이를 3-1로 제압했다. 우루과이는 전반 21분 세바스티안 아르베우가 먼저 골문을 열었지만 골이 수비수 디에고 루가노가 되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려 멕시코의 반격에 철저히 당했다. '개구리 점프' 드리블로 유명한 블랑코는 네리 카스티요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깨끗하게 쫓아 균형을 맞췄고 간판 골잡이 브라보가 후반 23분 결승골을 뽑아냈다. 멕시코는 후반 31분 파르다도의 중거리포로 우루과이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